

호남고립 탈피...통합시대 물꼬 틀까 전국적 관심

**이정현 바람
민심 흔드나**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적 관심을 끄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이번 여부 때문만은 아니다. 이정현 후보에 대한 관심의 배경은 이번 선거가 우리 정치의 최대 숙제인 지역구도 타파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최대 기회라는 점 때문이다.

우리 선거사에서 지역구도가 완연하게 나타난 '3김 시대' 이후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산에서 잇따라 출마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는 비록 총선에선 실패했지만 대선 승리로 보답을 받았다.

이 같은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됐고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부산 사하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부산 사하구에 호남출신 이 상대적으론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상을 뚫고 조 의원은 지역구도의 벽을 돌파했다.

또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간판을 달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0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였던 무소속 김두관 후보는 53.5%를 득표, 당선됐다.

지난 6월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새정치연합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49.34%의 득표율을 거둬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에 불과 1.31%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석패했다. 이 득표율은 '비(非) 새누리당' 후보로서는 역대 최고로 4년 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정길 후보의 기록 44.6%를 갈아치운 것이다.

더 대단한 도전은 대구에서 시도되고 있다. 경기 군포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새정치

부산 조경태·대구 김부겸...

영남은 이미 지역장벽 허물기

연합 김부겸 전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에 출마해 40.4%를 득표하며 선전했다. 이어 지난 6월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출마했으나 40.3%라는 득표율에 만족해야 했다. 김 전 의원의 도전은 무소속이 아니라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오는 2016년 총선에서 수성구에 재도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대구시

성공편 한국정치 변환점

실패편 당정 호남포기 가속

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수성구 득표율이 47.5%였다든 점 등에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앞서 2004년 총선과 이듬해 재선거 때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대구 동구갑과 동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각각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또 2000년 총선 때는 김경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경북 봉화·울진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

마해 49.99%를 얻었으나 한나라당 후보에게 0.01%(16표) 뒤지며 분부를 삼켰다.

이번에 또다시 호남에서 지역구도 타파에 도전하는 이정현 후보도 지난 2012년 총선 때 광주 서구에 출마해 39.7%를 득표했으나 석패한 경험이 있다.

정치권이 이 후보의 도전 결과를 주목하는 것은 성공할 경우 호남에서 처음으로 지역구도 타파의 주인공이 되면서 향후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동안 각종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호남 고립' 현상에서 벗어나 통합의 시대로 가는 물꼬를 틀 수 있

며 박근혜 정부에는 탕평책을 강력하게 촉구할 명분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이 후보의 도전이 실패할 경우에는 또 한번 지역구도의 벽에 절망감을 느끼는 한편, 정부 여당이 '호남 포기' 전략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우려다.

새누리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24일 "이번 도전이 실패하면 향후 수년간 광주·전남에서는 지역구도 타파의 시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전투표 하고 휴가 떠나세요

7·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25일~26일)을 하루 앞둔 24일 광주 광산구 선관위 직원들이 광산구 수완동사무소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野 3곳 단일화...선거판 요동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막판, 동작을과 수원 정 지역구에서 야권후보 단일화가 연이어 성사되면서 전체 선거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는 24일 정의당 노회찬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전격적으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수원 병(팔달) 지역 보궐선거에 나선 정의당 이정미 후보, 수원 정 정의당 천호선 후보도 각각 사퇴를 선언하면서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간의 야권후보 단일화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 수원 병(팔달)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와 새정치연합 손학규 후보, 수원 정 새누리

당 임태희 후보와 새정치연합 박광온 후보의 1대1 대결 구도가 완성됐다.

이처럼 극적인 야권후보 단일화가 연이어 성사되면서 야권이 열세를 보였던 전체 재보궐 판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기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다. 유족들과 운명을 달리 한 먼저 간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다"면서 "후보직을 사퇴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기 후보는 이어 "동작에서는 노회찬 후보께서 제 뺨까지 하셔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승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기 후보는 당초 광주 광산 을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서울 동작을에 전락 공천됐다.

하지만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등 야권 지지표가 분산돼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자 고심 끝에 후보직을 사퇴했다.

천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와 서울 동작을 나경원 후보를 가리켜 "박근혜 정권에 의해 기용된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인 두 후보의 당선을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박광온 새정치연합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 〈야권 단일후보〉
- 동작을 노회찬
- 〈새정치 기동민 사퇴〉
- 수원병 손학규
- 〈정의당 이정미 사퇴〉
- 수원정 박광온
- 〈정의당 천호선 사퇴〉

사퇴 결심 배경으로는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고뇌 어린 결단으로 후보 간 연대의 불씨가 됐고,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의 사퇴로 동작을에서 두 명의 연대가 이뤄지게 됐다"며 "비록 '당 대 당'의 연대는

아니지만 제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이날 오후 비슷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손학규 새정치연합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 병(팔달), 수원 정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후보단일화와 관련, '정치적 뒷거래'라고 강력 비난하면서도 판세에 미칠 파장을 촉각을 곤두세웠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정당이 먼저 선거를 포기했다고 하니 이제 유권자는 정당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양보에 의한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재보궐 선거 판세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 시점이 너무 늦어 애초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다 보수표 결집 가능성도 있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불모지 호남 새정치, 접전지 수원 지도부 총출동 표심 집중공략

여야 지도부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4일 각각 호남·충청권과 경기도 수원에서 지원 유세를 벌이며 표심잡기에 집중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광주 광산, 장성과 나주를 돌며 '불모지'인 호남 표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김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며 약속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말씀했다"면서 "진정한 전국정당이 되려면 호남 의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전 광주 광산을 선거구를 방문, 송환기 후보와 상가 밀집지역을 돌며 한 표를 호소했다.

오후에는 장성의 황룡시장과 나주 5일장을 찾아 이종호(영광·함평·장성·담양), 김중우(나주·화순) 후보를 각각 지원했다. 이정현 후보의 완곡한 요청에 따라 순천·곡성에는 가지 않았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전당대회 이후 이날 처음 당무에 복귀, 오후 충북 충주(이종배)와 충남 서산·태안(김제식)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경합지역인 '수원 삼각벨트'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김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행진을 여기서 멈추게 하고, 오만과 독선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또 다른 참사가 계속 되고 대한민국은 가라앉을 것이며 국민은 불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공동대표는 오전 수원 영통 광교동에서 박광온 후보(수원병)와 함께 주민자치센터를 돌며 표심 잡기에 진력했고, 오후에는 수원 팔달에서 손학규 후보(수원병)와 사전투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김 공동대표는 오후 수원 권선에서 백해원 후보(수원을)와 아파트 입주자연합회 대표자 간담회를 한 뒤 수원 영통에서는 박광온 후보와 아파트 장터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고의 안전을 실천할 때입니다

1%도 빈틈 없는 안전점검이 100%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설마, 빨리빨리, 대충... 이런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약 5천여명,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약 1천9백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피해액은 19조2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안전만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안전이 커질수록 대한민국의 행복이 커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